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봄꽃 절정'

임실군, 3월 재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7만6000명 돌파... 전년 동기대비 4% 증가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형형색색 봄꽃의 향연속에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명실상부한 봄꽃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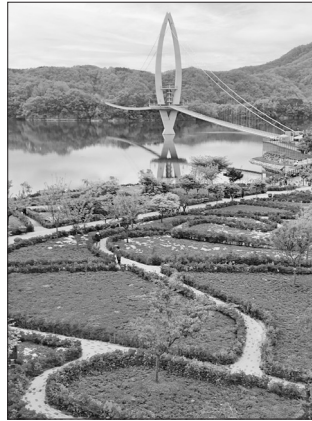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재개장 이후 붕어섬 생태공원 누적 방문객 수는 7만 6천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옥정호 일원이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 같은 인기에 발맞춰 군은 보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초화류 식재와 경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생태공원 전역에는 아네모네, 꽃양귀비, 수국, 비렌스 등 총 20종, 5만여본의 꽃이 공간별 특성에 맞춰 조성되어 옥정호의 수려한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입체적인 화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4월 중순부터 본격 개화한 꽃잔디는 대지를 뒤덮은 분홍빛 울타를 깔아 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어 개화를 시작한 철쭉은 선명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한 색감으로 공간의 깊이를 더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은 상춘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인생샷'을 선사하고 있다.

붕어섬의 대표 볼거리인 작약과 꽃양귀비 또한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약 5,500㎡ 규모의 작약단지에는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머금은 채 개화를 준비중이며, 1만㎡에 달하는 꽃양귀비 군락은 5월 중순부터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절정의 풍경을 선보일 전망이다.

공원 진입로에 위치한 요산공원 역시 약 4,000㎡ 규모의 꽃잔디가 붉은 등불을 켜 듯 일제히 만개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어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 전반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생태공원을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형 잔디밭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1,700㎡규모로 조성 중인 잔디밭에는 로젠그레핀, 노발리스 등 수입 잔디 3,900주가 식재되며, 트래블러스와 로툰다 등 이국적인 조형물이 더해져 낭만적인 정원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 붕어섬 생태공원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의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은 마감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소외받는 군민 없는 임실 만들겠다”

정인준 임실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정인준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실군민 2천여 명이 운집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정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 지역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은 새로운 임실을 향한 기대감과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임실의 변화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변화가 아닌, 모든 군민이 함께 누려야 할 변화여야 한다”며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임실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모든 군민이 함께 잘사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며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전 임실군의회위원과 전 임실군산림조합장을 역임하며 지



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자치법규 일체정비 추진

순창군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일체 점검에 나선다.

군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일체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제·개정된 지 오래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중복 또는 사문화된 조례·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비롯해 근거 법령이 폐지됐거나 실효성이 낮아

진 규정,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조문 전반이다. 특히 동일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경우 통합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부서별 관리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임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28일 남원시 노인복지관과 '통합돌봄 이행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남원노인복지관 '맞손'

통합돌봄 이행관리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고 읍면동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해 28일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과 '통합돌봄 이행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사업 수행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봄지원 계획 수립 이후 이행점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정보 제공 및 돌봄지원 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복지관은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변화와 욕구 변동, 위험 징후 등을 직접 확인해 기록·관리하고, 이를 남원시 및 읍면동과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시 서비스 조정 및 추가 지원 방안도 제안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자체 재원 300만원을 투입해 운영되며, 수행 인력은 복지관 직원 12명과 노인 자원봉사자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우선 7개 동 지역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23개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추진

순창군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순창군 교통약자 인구는 1만 4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상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는 생활 불편 해소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터 운영 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충을 통해 이동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증 보행장애인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인 이동 지원 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실제 이동지원센터는 지속적인 차량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창버스공용터미널 환경 정비와 공공요금 지원, 승차장 비가림 시설 보수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확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말까지 연장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접종 대상은 해당 절기 접종을 마치지 않은 고위험군과 이미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로 △65세 이상 어르신 △성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항암치료 중, 이식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미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과 면역 유지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지원, 이전 접종일로부터 최소 90일이 지났다면 의료진 상담을 거쳐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1회 추가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관내 3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되며,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별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재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국가유공자·유가족 예우 강화 '보훈수당 인상'

남원시가 관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공포일 2026.4.7.),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참정유공자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번 보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인상된 보훈수당은 2026년 4월 분부터 적용, 지급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300여 명으로 대상자 1인당 매월 3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 총 소요예산은 21억 3,372만 원으로, 기존 대비 올해 3억 5,100만 원 증액된다. 이에 따른 증액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